

유아와 어린이를 둔 가정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우리 가족 '사랑행'은 ▷유아숲체험장 ▷육아맘들의 '맘스컬처데이' ▷난임 부부 지원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등이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높인 대중교통 '편리행'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에어커튼 설치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동일 역 5분 이내 무료 재개표 시스템 구축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이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너도 나도 '안전행'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횡단보도 확대 ▷초등학교 횡단보도 취약 지점 '엘로카펫' 설치 확대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5000 안전속도 시행 등이다. 어르신과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함께해서 '따뜻행'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개선 ▷학교 밖 청소년 도시락·치과진료 지원 ▷행복 네일 케어 ▷청년 월세 지원 ▷드림웃장 ▷청춘드림카 지원 등을 펼친다.

소상공인이 주인공인 소상공인 '든든행'은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소상공인 행

복 복지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의자 앉는 식탁 확대 등이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을 개선하는 이제 모두 '안심행'은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 ▷송상현광장·부산시민공원 쿨링존 설치 ▷실내 공기질 관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이다.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우리 모두 '함께행'은 ▷산업단지 내 맞춤형 미니콘서트 ▷해양스포츠 체험 확대 ▷이동형 무대 지원 ▷부산박물관·미술관 야간 개관 확대 등이다.

**'소확행' 시민 제안 적극 답아**

부산시는 시민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기 위해 '소확행 시민 제안' 공모도 실시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성을 체감하는 소확행을 직접 제안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시행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갖는 효과를 기대한 공모였다. 부산시는 시민이 제안한 344건의 사업 중 31개 사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소확행'. 민선 7기 부산시의 2년차 행정 키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다.**

부산시는 시민 공모뿐만 아니라 각 실·국·본부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행'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부산시장은 "민선 7기 시정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시민행복'이며, 소확행 프로젝트는 말로만 하는 시민행복이 아닌 시정 혁신의 대표 사례로 전국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행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제\_jominje@korea.kr

## 부산시민 행복은 몇 점일까?

부산시, '시민행복지표 관리 시스템' 도입 10개 영역 64개 지표... 시 홈페이지 공개 주관 지표 8월말까지 시민 대상 설문조사

부산시민의 행복도를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이나 될까?

부산시가 '시민행복지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행복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행복 관련 대표 지표를 추출하고 실증자료와 시민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시민의 행복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민행복지표' 개발을 끝냈으며 이 지표를 활용해 실증적인 측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시가 개발한 시민행복지표는 4대 분야 10개 영역, 64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

지표 주요 내용은 개인에서 가족, 공동체, 도시로 행복 분야를 확장해 가는 구조이다. 이어 △건강한 개인 △마음의 행복 △즐거움 여가 △함께하는 가정 △따뜻한 이웃 △차별 없는 사회

△안정된 일자리 △쾌적한 환경 △편안한 도시 인프라 △미래가 있는 교육 등의 10개 영역 아래 개별 지표를 포함했다. 개별 지표는 객관적 지표 42개와 주관적 지표 22개로 나뉘어 있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해 11차례에 걸쳐 2천800여 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행복지표를 완성했다.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근 부산시 홈페이지에 시민행복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www.busan.go.kr/cityindexis)도 마쳤다. 이 시스템은 7월 18일(예정)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 홈페이지를 찾으면 부산시민 누구나 객관적 지표의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개인' 분야의 암발생률, 건강 검진율 등의 수치는 부산시 자체 자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에 대한 인식' 등 11개 주관적 지표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가 '시민행복지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행복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한다(사진은 시민 설명회 모습).

설문조사는 8월 말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 같은 측정 작업을 통해 마련한 64개 지표 변화 수준을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표 관리를 통해 행복도가 낮거나, 지표가 하락하는 분야의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 관련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장형철 부산시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은 "시민 참여로 만든 시민행복지표는 단순히 시민의 삶을 측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워크숍 등을 열어 시민행복지표 업그레이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제안 소확행 - 금 상**



**주민센터 이용한 짐(여행가방) 보관소 운영**  
김병권(금정구 구서동)



- 사업목적  
- 여행객들의 부산관광 편의 높이기
- 현황 및 문제점  
- 짐 보관소가 없어 무거운 여행가방 들고 여행하는 관광객 큰 불편
- 사업내용  
- 부산 각 동(주민센터)에 부산 찾은 타 지역사람 여행 편의 위해 짐 보관소 운영
- 기대효과  
- 부산 찾은 관광객 배려에 따른 호감도 상승 및 관광객 소비 증가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